

전주기상지청, 전북에도 기상관측차량이 달리기 시작합니다

- 전주기상지청 기상관측차량 도입, 위험기상 및 재난현장 기상관측자료제공 -

- 전주기상지청(청장 신언성)은 태풍, 호우, 대설 등 위험기상에 대한 조기 감시 강화 및 대형산불 등 재난 현장에 맞는 관측자료 및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상관측차량을 도입하여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.
- 기상관측차량에는 상공 약 30km까지의 고도별 자료를 측정할 수 있는 레윈존데와 1분 단위로 현장의 기상요소(기온, 습도, 기압, 강수, 풍향, 풍속)를 측정할 수 있는 지상관측장비,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출 및 전달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되어 있다.
- 기상관측차량은 위험기상 및 태풍 이동경로 예측에 중요한 상층 대기 흐름을 관측하고, 대형 산불 발생 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지의 바람과 기온,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현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- 또한, 여름철에는 도심 밀집지역으로 출동하여 폭염 특별관측을 수행하여 폭염저감 대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상자료를 생산하고, 겨울철에는 결빙취약 구간을 이동관측하여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인 도로살얼음 피해 예방에 활용될 예정이다.
- 이에, 전주기상지청은 2월 18일 산불 대응 모의훈련과 3월 5일과 6일 위험기상 대비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관측자료 생산 체계 및 긴급출동 대비태세를 점검하였다.
-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‘현장 중심의 관측자료 생산으로 정확한 기상예·특보 업무를 수행하고 위험기상을 조기에 탐지하여 전북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’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	책임자	과 장	김형국 (063-249-3202)
		담당자	사무관	지명진 (063-249-3231)



전주기상지청 기상관측차량



산불대응 모의훈련(2.18.)



위험기상 대비 고층관측 모의훈련(3.5.)